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독일의 시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과 국내 도입 방안
/ 장인성 통신원 (독일)

지방재정

일본 '고향납세'제도의 이점과 폐단 / 국중호 통신원 (일본)

지역발전

일본의 주민자발적 여촌활성화 사례
<도쿠시마현 미나미초 이자리> / 김지윤 통신원 (일본)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일본의 주민자발적 어촌활성화 사례 〈도쿠시마현 미나미초 이자리〉

개요

- 한국의 여러 어촌마을에서는 '저출산·고령화→수산업 경제 침체→일자리 감소→인구유출→공공기관/생활편의시설 감소→어촌소멸 위기'라는 '인구감소 악순환'이 계속되고 있음
- 일본 도쿠시마현, 인구 100명 남짓의 작은 어촌마을 '이자리'에서는 마을의 주민 모두가 주역이 되어 어촌마을 소멸의 위기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, 이러한 '주민자발적 어촌활성화 방안'을 소개하고자 함

아무것도 없지만, 무언가 있는 '이자리(伊座利)'

- 도쿠시마현·미나미초(徳島県美波町)의 동쪽 끝,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. 슈퍼도 편의점도 없는, 미나미초에서도 가장 작은 어촌마을 '이자리'.
- 어업이 유일한 산업. 정치망어업, 여름에는 해녀들의 전복잡이, 가을에는 왕새우 등으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음
- 주민은 100명(50세대) 남짓. 그중 이주민의 비율이 60%



| 그림 1 | 이자리의 전경

이자리 어촌 활성화의 시작

- “학교의 등불을 끄지 말자!”
 - 급격한 과소화와 고령화로 학생·수가 급감하여 폐교의 위기에 직면한 이자리학교 (초·중학교 병설).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마을 존망과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, “학교의 등불을 끄지 말자”라는 슬로건을 내세움
 - 당초에는 행정 측에 유학제도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, 결국,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학제도를 도입·운영하고 있음
- 모든 주민이 주역이 되는 협의회 발족 ‘이자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협의회’

-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처음으로 한 자발적 활동은 '놀러오세요 바다의 학교'로, 199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
- 이는 이자리 학교로의 전학을 장려하는 일일어촌체험 이벤트로,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짐
-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바다체험(크루즈체험, 카누체험, 정치망어업 체험, 왕새우잡이)을 통해 어촌생활을 이해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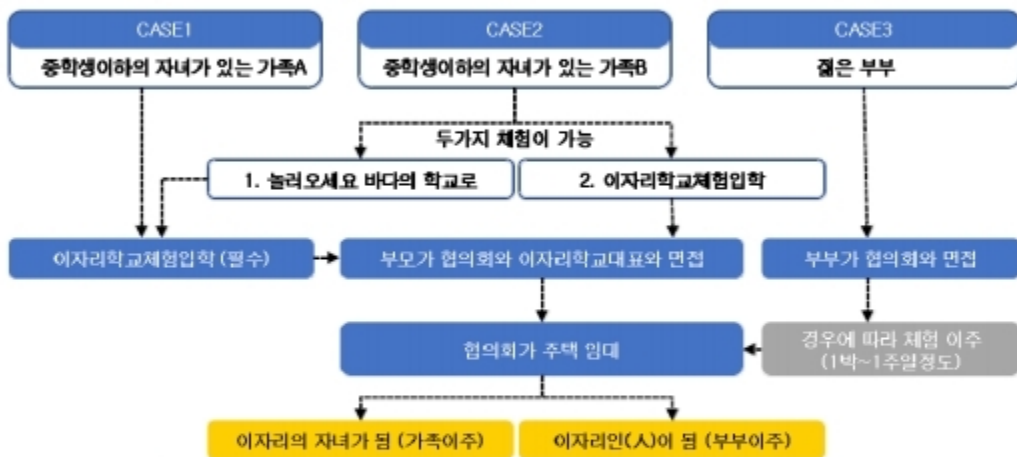


| 그림 2 | 놀러오세요 바다의 학교(어촌 일일체험이벤트).

- 나아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자주적/창조적인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, 2000년 4월, 이자리의 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'이자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협의회(이하, 이자리협의회)'를 결성

어촌유학제도

- 이자리의 어촌유학제도는 '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것'을 조건으로 함



| 그림 3 | 이자리 어촌유학제도의 흐름 (izarijin.jp에서 발췌, 번역 및 수정)

- 지금까지 1~2년의 단기유학을 포함하여, 전국각지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학 오고 있음
- 단기유학 이외 연장 혹은 정주도 가능함

해녀체험 '해녀 양성소'

- 이자리에서는 매해 여름, 해녀에 관심이 있는 18~40세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녀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자리의 해녀들과 직접 바닷속에서 전복, 소라를 따는 등 물질의 즐거움을 배우고, 바닷일의 고단함도 전해 들을 수 있는, 예비해녀들을 위한 해녀체험이벤트



| 그림 4 | 해녀체험 '해녀 양성소'

마을의 커뮤니티 거점 '이자리카페'

- 2007년, 어촌카페 '이자리카페'가 오픈
- 주민 전원이 카페운영자로, 이자리 어부들이 갓 잡은 생선을 제공하고, 주방은 해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, 가까운 미래에는 이주민 또는 다음 세대의 일자리로서 이어가고자 함
- 지금은 현(縣) 내외에서 방문하는 손님들로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카페로 자리 잡았고, 교류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(연간 이용자 약 1~1.5만 명)
- 주민주도형 소득 창출은 물론, 방문객들에게 어촌유학제도를 알리고 이자리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음



| 그림 5 | 이자리 카페

시사점

- 이주민 모집이 아닌, 엄선
 -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마을의 · 일원을 선별하기 위해, 이주희망자는 이주 전 협의회와 이자리학교 · 대표와의 면접을 거침
 - 쇠퇴 마을 활성화의 대책에서 단순 인구증가 혹은 경제성장만이 그 해답은 아님
 - 이자리협의회는 주민커뮤니티/지역 정체성을 계승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
- 교류·이주·정주촉진 활동으로서의 어촌체험이벤트
 - 일일어촌체험이벤트나 해녀체험 등은 이주희망자가 단기간 ·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, 각지에서 많은 참가자가 모이고, 지역의 활기와 주민들 간의 교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
- 주민 자발적·주도적 마을만들기
 -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주도가 아닌, 주민들의 유연한 발상으로 여러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결과가 이자리만의 매력을 살린,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됨
 -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어촌집락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, 어촌의 인구 유지 · 등에 일정한 효과도 보이고 있는 점으로부터 '제2회 선진적 마을만들기 공모전(국토교통성, 2018)'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주민 자발적 어촌 활성화의 선진사례로서 일본 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

출처

- 「젊은 어부 다 떠나고...동해안 어촌마을이 사라진다」 연합뉴스, 2019.02.20.
- <https://izarijin.jp/>
- <https://chushikoku.food-stadium.com/headline/000285/>
- http://www.mlit.go.jp/toshi/toshi_daisei_tk_000034.html



김지윤 통신원

(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)
jiyeon-k@iis.u-tokyo.ac.jp